

POLITICS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이재명, 전남 동부권 방문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전남도, 3년 연속 최우수

전남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약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전체 공약 중 64%를 완료해 전국 시·도 평균 이행완료율(51.62%)보다 12.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진 중인 전체 공약의 2024년 목표는 97% 이상을 달성했으며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항목에서도 합격(Pass)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SA)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청년 일자리 대거 창출’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규모 확대, 케이(K)-바이오 핵심·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엘엔지(LNG) 허브터미널 구축 등 64개 공약이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30조 원 투자 유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등 36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 40% 저렴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6일부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 미식의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최초로 미식테마 국제행사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26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박람회는 ‘자연이 차린 식탁 남도, 지속 가능한 미식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 셰프, 미식가, 식품 기업과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전시, 수출상담회, 학술 행사, 시식과 경연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도미식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 판매가는 1만 원이다. 사전 예매자는 예매 시기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단계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6월 30일까지 1차 할인 기간에는 일반인의 경우 6000원(40% 할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차 할인 기간에는 8000원(20% 할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차 할인 기간에는 9000원(10% 할인)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현장에서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석 연료 시대 끝…바람·햇빛 등 활용 산업체제 개편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어 국민주권 정부 만들겠다”
“호남은 민주당 뿌리…저는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5일 광양과 여수, 순천을 잇따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서 전남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포식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낮 12시 30분 광양 전남 드래곤즈구장 옆 광장에서 유세를 열고 “이제는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바람과 햇빛 등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했다”며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지대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을 도입한 전남 신안군 사례를 들며 “군민 1인당 연 250만 원씩 지급받으며 인구까지 늘어난 신안군처럼, 여수와 서남해안에도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돌려주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연 수백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구조가 정착되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정부는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고 있으며, 전기를 팔 수 있는 송전망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로막혀 있다”며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즉 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과 민간 투자를 통해 촘촘한 송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여수 이순신광장 집중 유세에 나서 해양 주권 수호와 해양 산업 혁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위기에 빠진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해양산업 혁신, 여수 국가산단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정당이 나 정치인의 색깔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순천 연향동 거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축구장 북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남

도 “정치는 국민의 머슴이 되어야 하며, 나쁜 머슴은 혼내고 쓸모없는 머슴은 해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지만 제대로 작동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너무 많이 찢어져 있다”며 분열된 국론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

는 것 아닌가. 산이 있어야 골이 있고 원곡이 있어야 오른쪽도 있다”며 “타협하고 조정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호남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호남은 민주 세력의 본산”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남은 게 뭐냐”는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저 이재명은 다

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양을 시작으로 여수 이순신광장, 순천 연향동을 거쳐 저녁 7시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세를 끝으로 ‘이순신 벨트’ 순회 유세를 마무리했다. 빛속에서는 “호남은 민주 세력의 본산”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남은 게 뭐냐”는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저 이재명은 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 지역활동 시동

광주·전남 출범회의 개최

“진짜 대한민국 완성해야”

제21대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가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순회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 위원회는 15일 오후 민주당 광주시 선거전략소에서 광주 전남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민주당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 장 양부남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위원회 핵심 위원의 위촉 및 임명장 수여가 진행됐다. 위원회에는 추한전 광주시 정무부보가 공동주문단장을 맡아 활동한다.

위원회는 “이번 대선은 압도적 승리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대선경선에 나섰던 김동연 지사를 지지했던 전국 각지의 역량을 본선 과정에서 모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민주당을 지지해온 광주·전남 지역부터 시작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영인 위원장은 “경선에서 분전했던 김동연 지사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제21대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모두의나라위원회’가 15일 광주를 시작으로 지역순회에 돌입했다.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전했다”며 “극우와 내란세력 척결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을 특정세력의 후보가 아닌 모든 국민의 후보라고 한 만큼, 진짜 대한민국의 꿈이 모두의 나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자”며 “오늘을 필두로 전국을 누비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양부남 위원장은 “80년 5월 정신은 비상계엄, 탄핵으로 이어진 위기를 넘어선 힘이다. ‘모두의나라’가 ‘진짜 대한민국’이다. 민주당 후보가 민주주의 회복, 민생해결, 사회통합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로 갈등과 분열극복, 통합과 비전 정치 실천의 의지를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 종료 직후 고영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진은 광주송정역 인근의 소상공인과 인사를 나누며 정권교체 흐름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한편 광주전남 출범회의를 마친 위원회는 16일 전주 방면으로 이어 부산, 대구, 수원, 춘천, 청주 등을 순회하며 지역 전진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문수 계엄사과 진심이면尹출당 조치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사진)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의 비상계엄 사과가 진심이라면 당장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내란수와 윤석열을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발표된 KDI(한국개발연구원) 상반기 경제동향을 인용하며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8%로 석 달 만에 성장을 전망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수치는 단 순히 암울한 수준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평가하며 “지난 1980년 군부 쿠데타,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면 반세기만의 최저 성장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토록 급격한 성장을 하향의 원인으로 ‘내란경제’의 충격을 꼽았다.

또 “미국의 한 경제매체가 윤석열을 ‘대한민국 GDP 킬러’로 명명한 그대로”라며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길은 막히는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말 그대로 울고 있는 아이 빵을 때린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에 대해 “진심이 느껴지지 않은 걸치레 사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윤석열과 거리 두기 없이는 중도 표심을 얻기 어렵다는 선거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사과가 진심이라면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윤석열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두환 독재 타도 투쟁에 앞장섰던 김문수 후보의 과거를 언급하며 “김 후보가 지난 시절 선택했던 한 번의 전향을 다시 되돌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철저한 단절,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공인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 치유·포용 정신 강조

복지·인권 향상·편견 없는 사회 연대 의지 다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센인과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센인 1000여명,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문금주·차규근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함께해 한센인의 인권 향상과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다.

또한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묵묵히 헌신한 마리아노와 마가렛 두 분의 숭고한 사랑과 봉사 정신도 재조명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인(68명)에게 생계비 지원, 정착마을(8개소)과 생활시설인 여수

에양평안요양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한센관리협회(2개소) 보조금 지원 등 한센인 생활안정과 실질적 지원에 힘써왔다.

김영록 지사는 “개원 109주년을 맞은 이곳 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인권 회복과 생명 존엄을 지켜온 상징적 공간으로 한센인 삶의 역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유산”이라며 “전남도는 치유와 포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센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록 지사는 이날 조규홍 장관에게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요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조속한 추진도 건의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38% “사전투표 할 것”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2.5%p)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86%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0.8%,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였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3년 전 20대 대선 전 조사의 83%보다 3%p 늘었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연합뉴스